



강 용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40년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온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화학공학회 모든 회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1976년 창립한 이래 40년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온 한국고분자학회가 어느덧 불혹의 나이에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시는 모습은 주위의 학회들에게도 모범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혹의 나이는 외부로 부터의 어떤 미혹이나 유혹에도 균형을 잃지 않으며 내적으로는 확실한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기준이 잡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고분자과학회는 이제까지 선배 분들께서 다져온 튼튼한 기반 위에 이제 새로운 ASAP(Advanced Stage Analysis Program)에 의한 고분자과학회 만의 차별화된 Stage를 설정하고 멋진 성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고분자과학 및 고분자공학 분야의 파수꾼으로 이 분야의 교육, 인재양성, 산학협력, 정책제시, 기술개발, 산업발전 등에 참여하고 기여해 오신 한국고분자학회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회 중의 하나로 우뚝 섰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CI 영문지인 'Macromolecular Research'와 SCIE 국문지인 '폴리머' 그리고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 등의 발간을 통하여 산·학·연·관의 소통과 회원들 간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주도함으로써 학회를 이처럼 훌륭하게 발전시켜 오신 그간의 여러 임원 분들과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IUPAC를 비롯한 수많은 고분자과학과 공학 분야의 국제 학술 회의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Globalization의 선봉 역할을 하셨음은 물론이고, 이 분야 연구진과 기술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온 한국고분자과학회는 각각의 단량체인 회원들의 창의적인 힘을 모아 거대한 Macromolecule의 힘을 창조하여 탄생시킨 걸작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현존 실체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현실의 반영이며 이는 과거 가치의 연장선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처음 한국고분자학회를 창립하신 여러 선배 과학기술자 분들의 유지를 받들고 현재의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회원 여러분들의 의지를 모아 호시우보(호랑이처럼 주위를 살피고 소처럼 진행)하면서, 앞으로 더욱 비상하는 학회로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강 용